Strategy Idea

본 자료의 원본은 2025년 11월 7일 발간된
[2026 Outlook #8 – 유틸리티/건설: Bullpen Day] 임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 2026 Outlook #8 (해설판)

# [유틸리티/건설] Bullpen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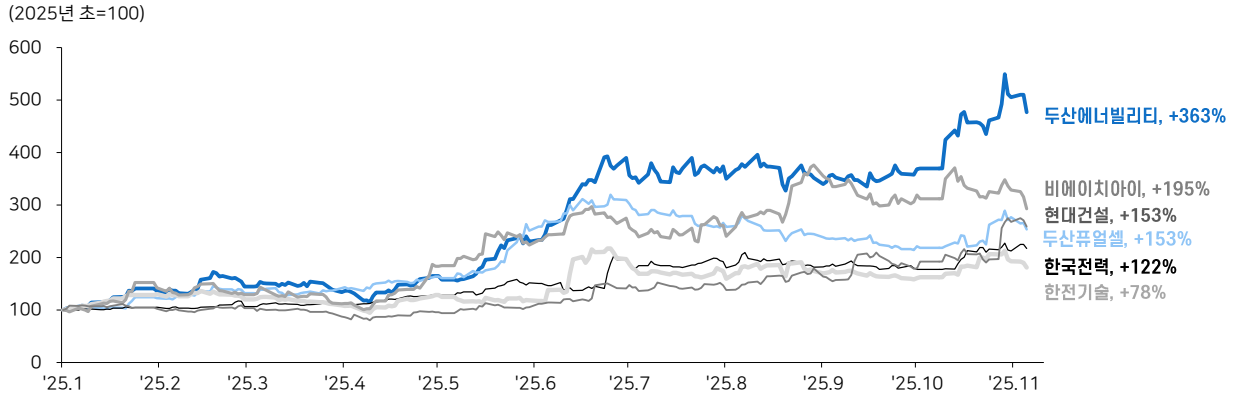
- ✓ **[원전, 가스]** 2026년 역시 원전, 가스 발전의 해가 될 것. 그리고 그 수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되기보다 중소형주 종목들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
- ✓ **[유틸리티]**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은 2026년 미국을 넘어 한국에도 번질 전망. 미국에서 좋았던 밸류체인을 한국에서도 주목할 필요. 그러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국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투자가 선행돼야 함. 나아가, 전력망 투자의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 요금 인상 이후에는 전력망, 해상풍력 밸류체인에 주목
- ✓ **[건설]** 지방 매매가 최근 들어 반등 시작. 2026년은 유동성 확대 및 공급 절벽으로 지방 매매가가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다만 올해까지는 여전히 미분양 대손상각비, 해외 일회성 비용 등 우려 잔존. 2026년 지방 매매가–분양가 Gap 플러스 전환을 주목

## Part 1 원전, 가스: 방향성은 그대로, 수혜 폭은 확장

2025년 에너지 섹터는 '원전의 해'였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YTD 363% 급등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7위에 올랐다. 체코를 비롯한 대형 원전 수주, AI데이터센터와 미국 SMR 시장 확대, 가스터빈 수출 기대감이 주요 주가 상승 원인이었다.

나아가 무거운 주식으로 여겨졌던 한국전력, 현대건설 등도 원전 수혜주에 편승하며 각각 YTD +122%, +15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반기부터는 밸류에이션 논란이 심화되었으나, AI 하드웨어 CAPEX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고밸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1 **원전, 가스 관련주들의 주가 수익률 추이**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정부가 직접 투자 … 원전, 가스는 2026년에도 계속 된다

원전과 가스 시장은 2026년에도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트럼프행정부는 2025년 5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4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자금 지우너도 이뤄지고 있다. 10월에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확보한 재원으로 Westinghouse와 Nuscale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전력 자산의 주요 투자 주체인 빅테크들도 2026년 CAPEX를 약 20% 증가시킬 전망이다.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한다. 2026년에는 Vogtle 3,4호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Fermi가 진행하는 'President Donald J. Trump' 원전으로, 2025년 10월 현대건설과 EPC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착공이 예상된다.

**표1 제 미국 대형 원전 파이프라인 점검**

| 프로젝트 | 개발사 /스폰서 | 원자로 | COL 신청 시점 | COL 승인 시점 | 현재 COL 상태 | 착공 여부 |
|---|---|---|---|---|---|---|
| Turkey Point 6&7 (플로리다) | FPL (NextEra 자회사) | 2기 AP1000, 2.2 GW | 2009.6 | 2018.4 | COL 유효 | 미착공 |
| William States Lee 1&2 (노스캐롤라이나) | Duke Energy Carolinas | 2기 AP1000, 2.2 GW | 2008.12 | 2016.12 | COL 유효 | 미착공 |
| V.C. Summer 2 & 3 | Santee Cooper | 2기 AP1000, 2.2 GW | 2012.3 | 2019.3 | COL 취소 | 일부 착공 (주기기 공급) |
| President Donald J. Trump Advanced Energy & Intelligence Campus (텍사스) | Fermi | 4기 AP1000 (4 GW) | 2025.6 | 심사 중 | 심사 중 | 3Q26 착공 계획 |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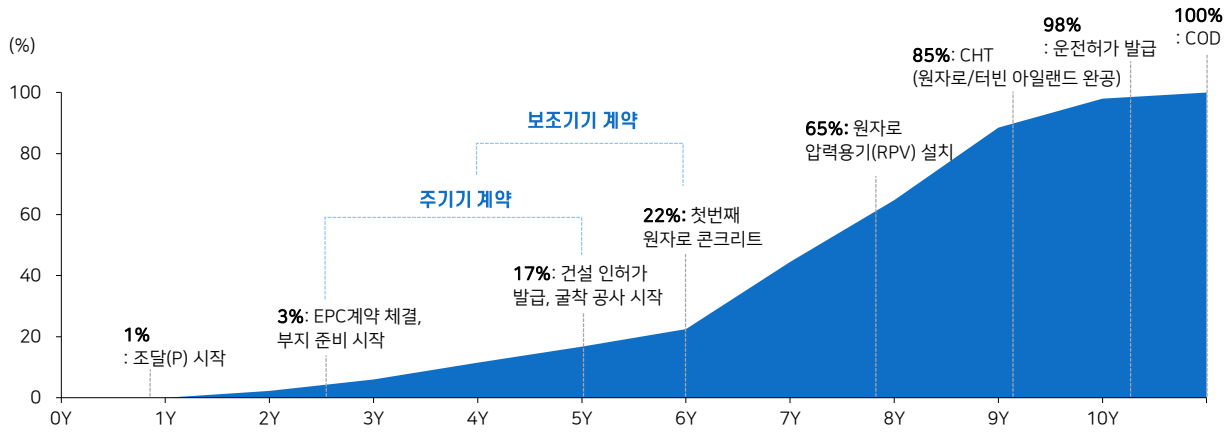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SMR 도 실제 착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25 년 5 월 GE-Hitachi 는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로부터 건설 승인을 받았고, Terrapower 는 26 년 1 분기 중 Wyoming 프로젝트 착공이, Nuscale 은 연내 PPA 체결 이후 빠른 착공이 예상된다. 또한 Holtec 은 2026 년 1 분기 중에 Palisade 원전 착공이 (비원자로 분야) 예상된다.

이러한 타임라인에 맞춰 두산에너빌리티는 1Q26 Nuscale 향 SMR 수주를 예상하고 SMR 전용공장도 착공할 예정이다.

### 이제 중소형주에서 영웅이 나타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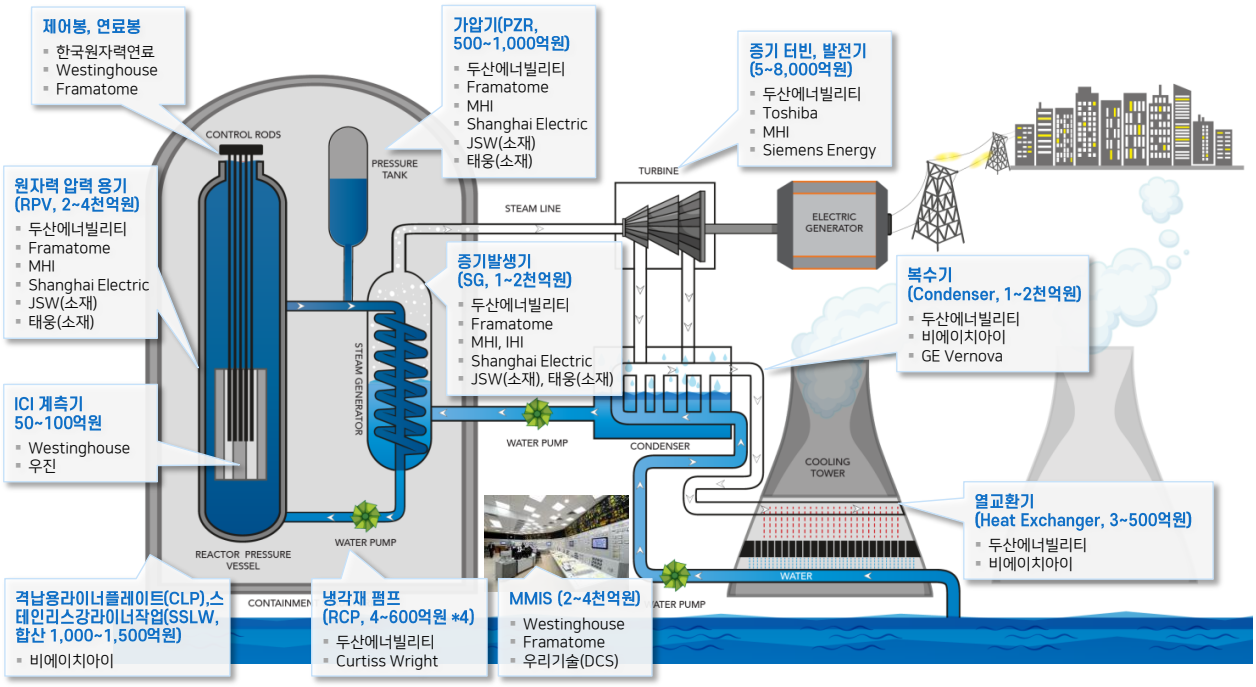
실제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제작에 들어가면 부품주 중심으로 수혜가 더 확산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기기, 소재 사업자들은 착공 이전부터 Tech Provider, 디벨로퍼 등과 밀접하게 협력한다. 하지만, 실제 착공 및 주기기 제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보조기기 사업자들이 선정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보조기기를 담당하는 중소형주들의 수혜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다.

**그림2 원전 건설 누적 진행률 예시: 10년 프로젝트 일정**




자료: IAEA, WN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원전 기자재 밸류체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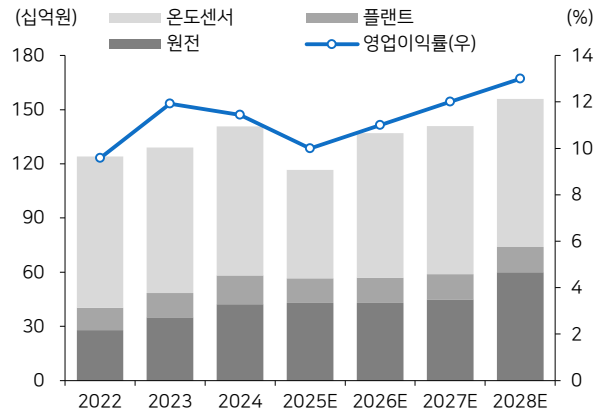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대표적으로 우진, 비에이치아이, 우리기술, 태웅 등이 한수원(기술 개발사) 혹은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외 SMR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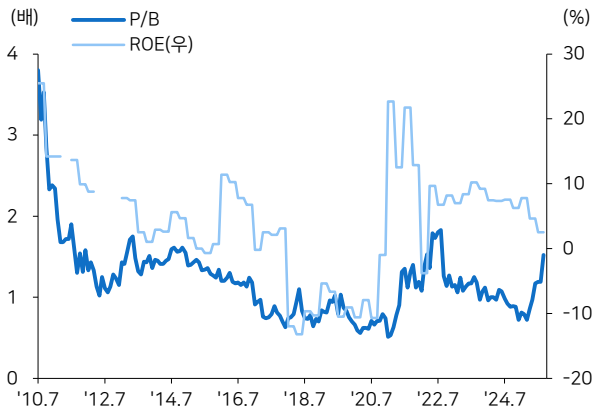
먼저 우진은 국내 표준형 원자로(APR-1400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계측기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 그중 원자로 내부에서 핵분열 속도를 측정하는 ICI(In-core Instrumentation)가 원전 수주의 약 40%를 차지한다. 대형 원전에는 APR-1400 기준 약 60 개 내외의 ICI 가 탑재되는데, SMR 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Nuscale 이 NRC 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77MW 모듈 하나 당 12 개의 ICI 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ICI 의 길이는 짧아질 수 있지만, 단위 당 탑재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4 우진 부문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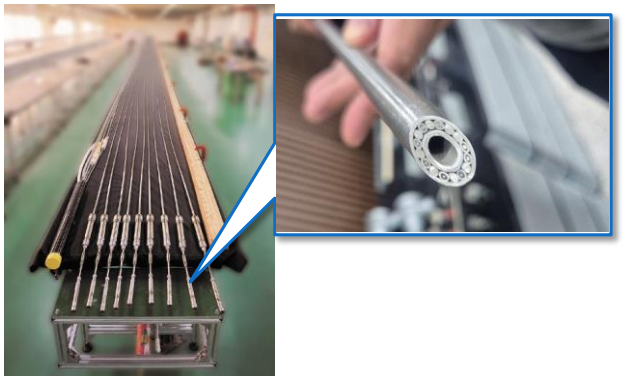

자료: 우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우진 PBR-ROE: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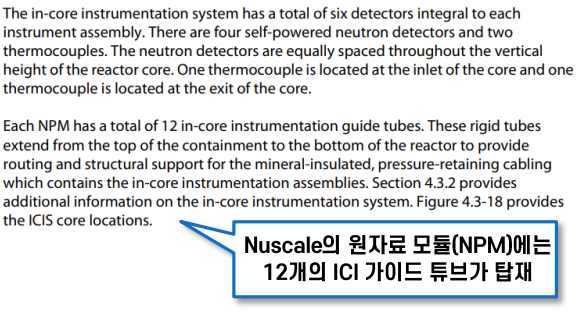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우진의 주요 제품인 ICI: APR1400에 60개 내외를 탑재**



자료: 우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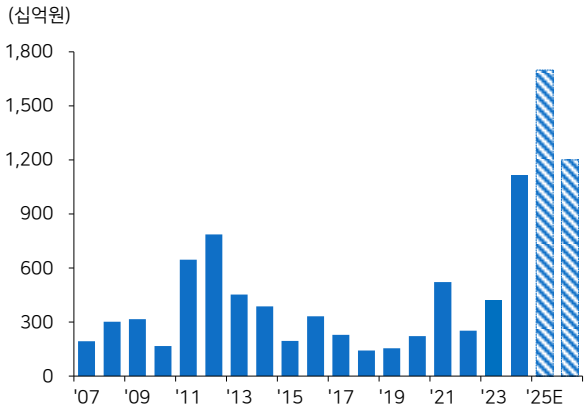
**그림7 Nuscale의 NRC 인허가 서류에는 12개의 ICI 가이드 튜브 탑재를 명시**




자료: Nuscale NRC FSAR(2020),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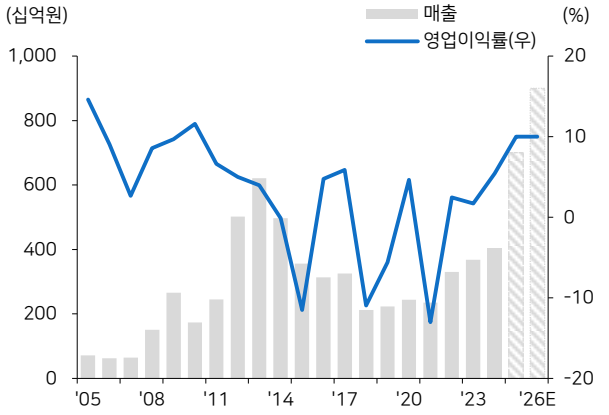
비에이치아이는 2024~2025 년 HRSG(열회수보일러)에서 급격한 수주 확대를 경험 중이다. 2026 년에는 신규 수주가 다소 감소하겠지만, 그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원전 사업에서의 수주 기여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5 년 신한울 3,4 호기 수주에 성공했고, 체코 수주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과거 도시바와 협력하여 미국 Vogtle 3,4 호기 원전에 보조기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고, 최근 북미 HRSG 시장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림8 비에이치아이 수주 추이 및 전망**




주: 신규 수주는 연간 수주잔고 변화 + 당해년도 매출액으로 계산.
2023년의 경우 일부 수주 취소분이 차감되어 계산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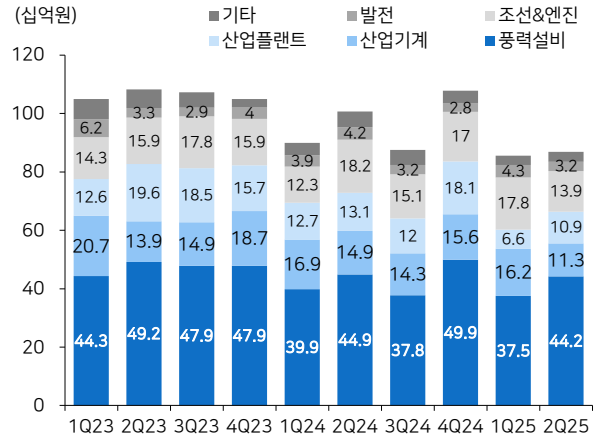
**그림9 비에이치아이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태웅은 원전, 풍력, 조선 등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자재 제작을 위한 주단조 소재들을 제작한다. 특히 최근은 원전, SMR 사업에서 성장 모멘텀이 강한데, Holtec, BWX Technology, GE-Hitachi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주기기 및 보조기기 공급을 예상한다. 이외에 다양한 벤더들과 공급 논의 중이며, 2026 년은 SMR 매출이 본격 인식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0 태웅 부문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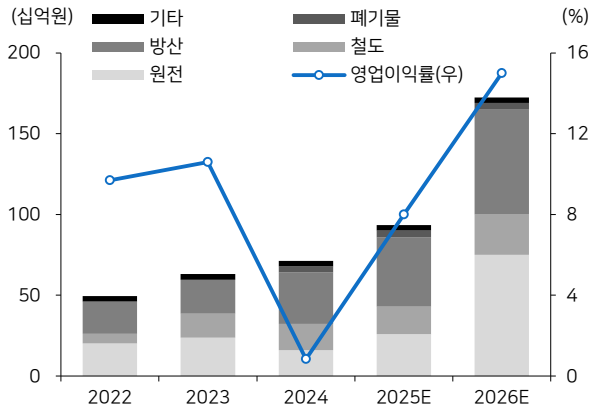

자료: 태웅,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태웅의 원자력 관련 제품들**

자료: 태웅,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우리기술은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의 핵심 부품인 DCS (분산제어시스템,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감시제어)를 제작한다. 아직 해외 노형으로의 공급 논의는 없으나, i-SMR 등 국내 원자로 개발 시 국산 DCS 업체는 우리기술이 유일하다. 2026 년 신한울 3,4 호기 및 기타 원자로 사업 매출 인식으로 수익성이 높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매출과 이익 상승세를 예상한다.

**그림12 우리기술 부문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우리기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우리기술의 DCS(분산제어시스템): MMIS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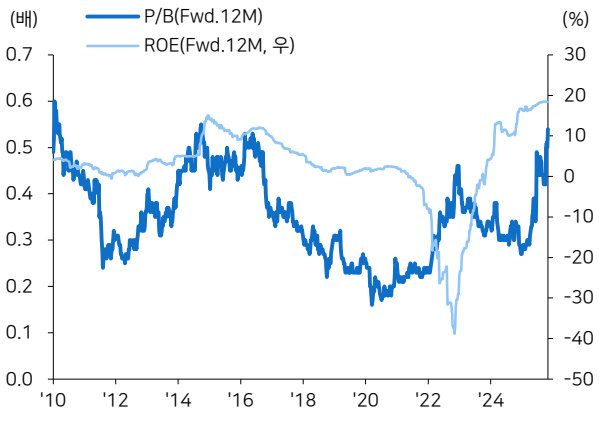
자료: 우리기술

### 한국전력,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가장 매력적인 원전 수혜주

한국전력은 숨겨진 원전 수혜주다. PBR 0.5 배 초중반대의 현 밸류에이션은 20% 초반대의 선행 ROE 를 감안하면 본업의 가치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수준이다 (과거 PBR 고점은 0.55 배~0.6 배 수준에서 형성).

미국 Cameco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Cameco 는 전통적인 광산 업체로서 우라늄 가격에 연동되어 주가가 움직여왔으나, 최근 이러한 추세를 깨고 주가가 급등했다. 한수원의 경쟁사인 Westinghouse 지분 인수 이후 그 가치를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도 이러한 재평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14 한국전력 선행 PBR-ROE 추이**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Cameco, Westinghouse 가치 반영되며 우라늄 가격과 Decoup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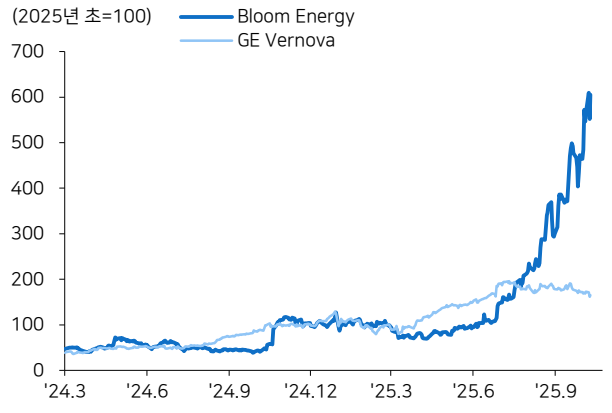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ameco, 우리기술

### 가스발전도 중소형주 시대가 온다

가스터빈의 리드타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약 5년). 이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 상대적으로 리드타임이 짧은 중소형 발전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 대표 사업자인 Bloom Energy는 2025년 하반기 들어 GE Vernova 대비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racle 등 대형 데이터센터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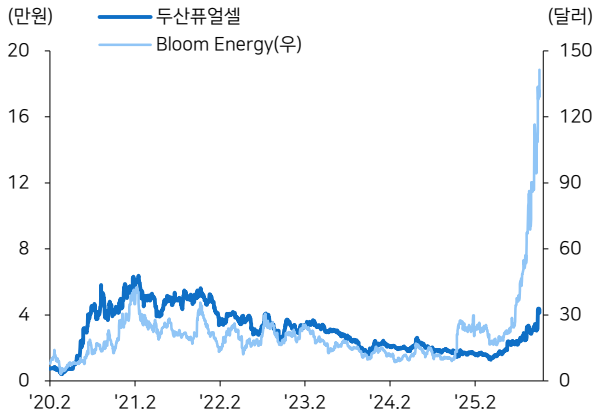
두산퓨얼셀도 ㈜두산 자회사인 하이액시옴을 통해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2026년 초부터 非데이터센터향으로 수주 시작해, 2026년 상반기 유의미한 데이터센터향 수주를 기대한다. 가스발전 시장에도 중소형주에 주목할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림16 GE Vernova vs Bloom Energy 상대 주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두산퓨얼셀 – Bloom Energy 최근 주가 Coupling 강화었지만...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Part 2 유틸리티: AI 투자 전에 전기요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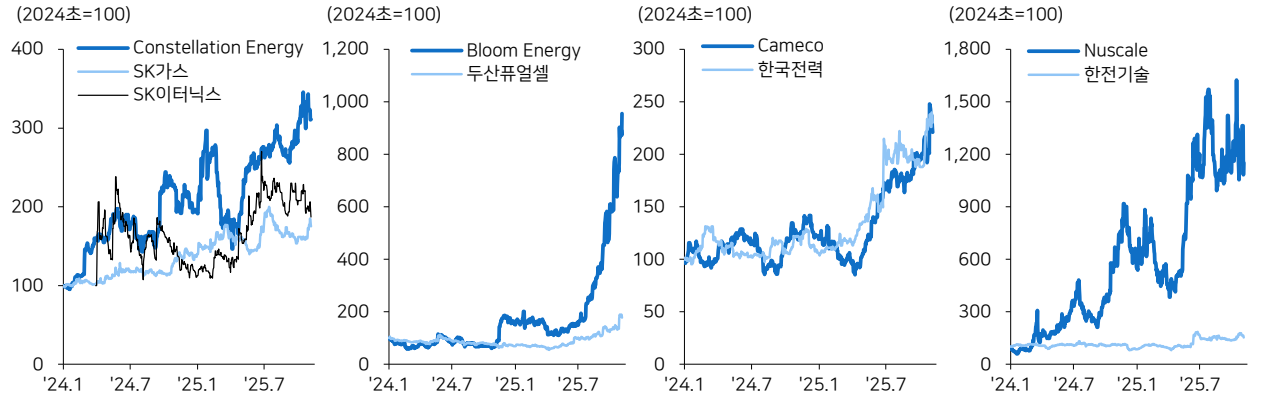
Nvidia에서 GPU 26만개를 확보하고, 대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계획을 발표하는 등 AI 데이터센터 붐이 국내로 확장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2020~2025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연간 100~200MW 수준이었으나, 2026년 이후 500MW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 2028년에는 1GW 이상의 시장이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AI데이터센터 건설이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미국 AI데이터센터 전력 밸류체인을 국내에서도 복제하는 전략이다(연료전지: Bloom Energy-두산퓨얼셀 / SMR 기술 개발사 Nuscale-한전기술 / 발전사 Constellation Energy - SK가스, SK이터닉스 등).

미국 중심의 데이터센터 건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몇몇 회사만 수혜를 봤으나, 국내에서 데이터센터가 지어진다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장밋빛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전력망 투자다. 최근 들어 AWS, Open AI 등이 국내 AI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사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을 거부 중이다. 그동안의 전력망 과소투자로 데이터센터가 주는 영향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GPU 26만개를 모두 가동하려면 최소 500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n-site 발전소를 구동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그림18 한국에서도 AI 전력 수혜주가 새로 부각되나?




주: SK이터닉스는 2024년 3월 29일=10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현 정권에서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은?

'민주당은 전기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는 고정 관념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력망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바 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전력망 투자 확대',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요금 인상은 정치적 의사결정이라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AI데이터센터 등 산업적인 과제에 대한 필요성이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망 확충 사업 중 가장 큰 골자인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사업(1단계)은 2031년 내에 상업 운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2030년까지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2030년 완공을 위해서는 2026년 착공이 필요하고, 사업 재원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그 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전기요금 인상 이후는? 전력망과 해상풍력에 주목

전기 요금 인상 이후에는 전력망,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2025년 말부터 신안우이, 안마 해상풍력 등 조 단위 프로젝트가 착공되면서 실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25년 11월 NDC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2026년에는 1~2개의 프로젝트가 아닌 4~5개의 프로젝트가 착공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에 SK오션플랜트, SK이터닉스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그림19 **한국전력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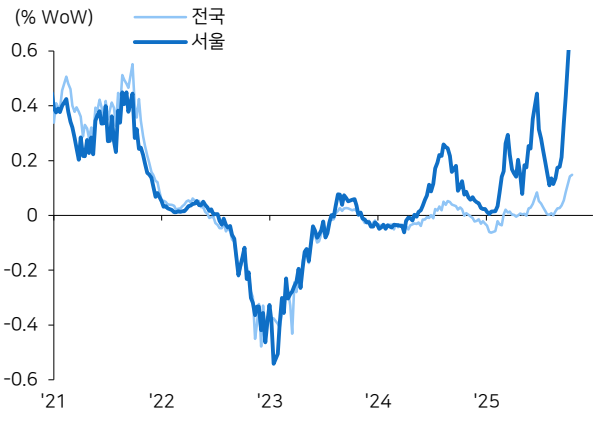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5</th><th>2026</th><th>2027</th><th>2028</th><th>2029</th><th>2030</th><th>2031</th><th>2032</th><th>2033</th><th>2034</th><th>2035</th><th>2036</th><th>2037</th><th>2038</th></tr>
<tr><td rowspan="2">1단계</td><td>변환</td><td>부지확보</td><td>설계인허가</td><td>계약</td><td colspan="2">건축 골조, 마감<br>변환 설계, 제작</td><td>변환 시공</td><td>시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송전</td><td>설계</td><td colspan="2">계약, 인허가, 보상</td><td>경과지 조사</td><td colspan="2">케이블 제작, 설치, 보호공사</td><td>시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2단계</td><td>변환</td><td colspan="3">부지확보</td><td colspan="2">설계 인허가</td><td>계약</td><td colspan="2">건축 골조, 마감</td><td colspan="2">변환 설계, 제작</td><td>변환 시공</td><td>시험</td><td></td><td></td></tr>
<tr><td>송전</td><td colspan="3">경과지 선정</td><td>설계</td><td>계약</td><td colspan="2">보상, 인허가</td><td colspan="3">케이블 제작, 시공</td><td>보호공사</td><td>시험</td><td></td><td></td></tr>
<tr><td rowspan="2">3단계</td><td>변환</td><td colspan="4">부지확보</td><td colspan="3">설계 인허가</td><td>계약</td><td colspan="2">건축 골조, 마감</td><td colspan="3">변환 설계, 제작</td><td colspan="2">변환 시공</td><td>시험</td></tr>
<tr><td>송전</td><td colspan="5">경과지 선정</td><td colspan="2">상세조사, 설계</td><td>계약</td><td colspan="2">보상, 인허가</td><td colspan="3">케이블 제작, 시공</td><td colspan="2">보호공사</td><td>시험</td></tr>
</table>

자료: 한국전력,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Part 3 건설: 반등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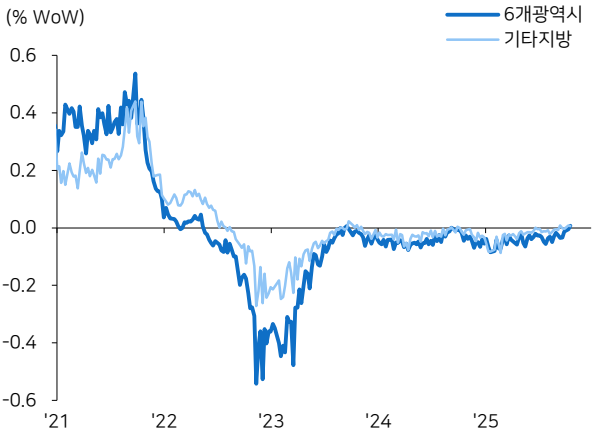
2026년 건설 섹터에서 중요한 질문은 '지방 집값 상승이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공급 부지가 제한적인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은 전체 탑라인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주목할 부분은 서울 집값 폭등에 가려져있지만, 지방 매매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26년에는 유동성 확대와 공급 절벽으로 지방 매매가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20 전국 집값 상승은 서울이 견인




자료: KB부동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1 서울에 가려져 있지만 지방 가격도 10월 들어 플러스 전환




자료: KB부동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2025년은 6.27대책, 10.15대책과 같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들이 시행된 해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규제 지역 내 20억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6.27 대책 이전에는 10억원이 필요했으나, 10.15 이후에는 16억원이 필요하게 됐다(DSR 등은 고려하지 않은 사례). 그러나 비규제 지역은 2025년 규제 영향이 미미해, 일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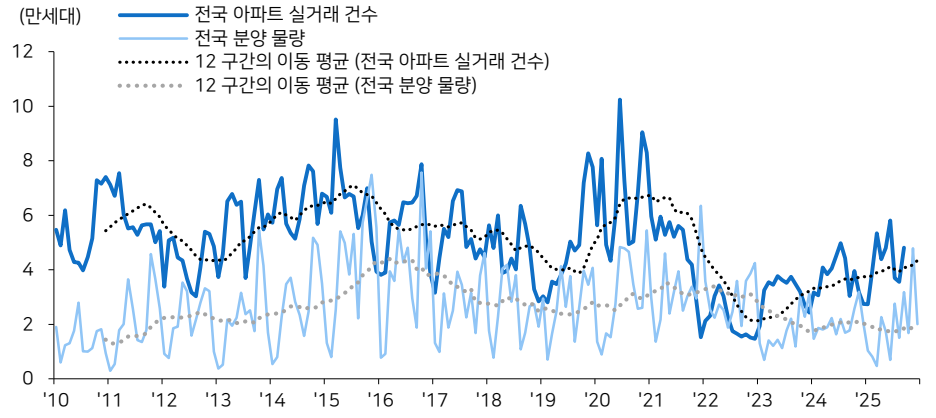
표2 규제 전후 부동산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기 자본

| | 집값 | 규제지역 | | 비규제지역 | |
|---|---|---|---|---|---|
| | | 자기자본 | 주담대 | 자기자본 | 주담대 |
| 6.27 이전 | 5억 | 2.5 | 2.5 | 1.5 | 3.5 |
| | 10억 | 5 | 5 | 3 | 7 |
| | 15억 | 7.5 | 7.5 | 4.5 | 10.5 |
| | 20억 | 10 | 10 | 6 | 14 |
| | 30억 | 15 | 15 | 9 | 21 |
| 6.27~10.15 | 5억 | 2.5 | 2.5 | 1.5 | 3.5 |
| | 10억 | 5 | 5 | 3 | 7 |
| | 15억 | 6 | 9 | 4.5 | 10.5 |
| | 20억 | 14 | 6 | 6 | 14 |
| | 30억 | 24 | 6 | 9 | 21 |
| 10.15 이후 | 5억 | **3** | **2** | 1.5 | 3.5 |
| | 10억 | **6** | **4** | 3 | 7 |
| | 15억 | **11** | **4** | 4.5 | 10.5 |
| | 20억 | **16** | **4** | 6 | 14 |
| | 30억 | **28** | **2** | 9 | 21 |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일반적으로 매매 시장은 분양 시장보다 12~18개월 선행하여 움직여왔다.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 전환하기 시작하면 분양 물량도 시차를 두고 반등하는 것이 패턴이었다. 그러나 2023년 초를 저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했는데도 분양 물량은 회복되지 못했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재고 부담, 분양가-매매가의 극심한 괴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과잉 공급만 해소된다면 지방 분양 시장도 반등 가능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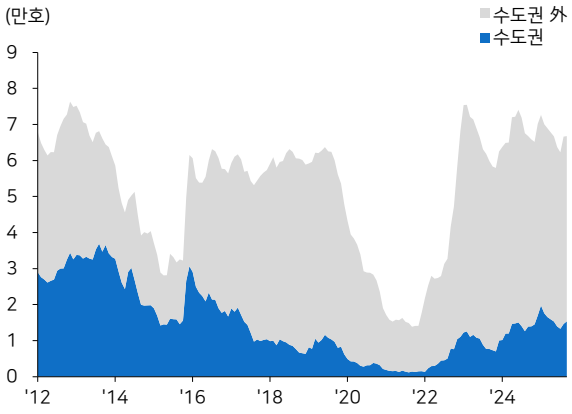
**그림22 거래량 vs 분양 물량**




자료: REP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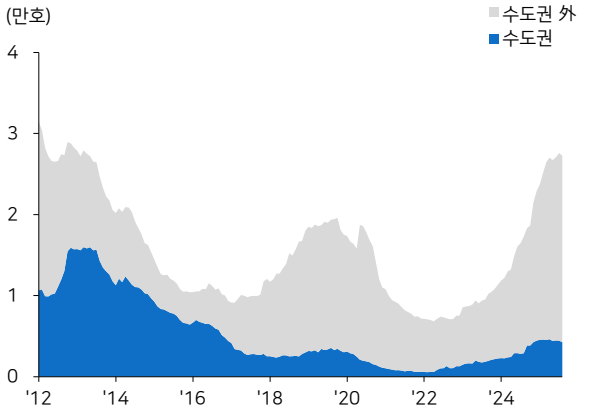
지방 분양 시장 회복의 열쇠는 미분양 물량 해소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2025년 9월 YTD -5% 감소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분양 물량 급감이 미분양 물량의 감소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은 2025년 9월 YTD +27% 증가했다. 시차를 두고 증가한 것인데, 2025년 하반기 들어서는 정체된 모습이다. 2023년 초가 전국 미분양의 절정이었으니, '준공 후' 미분양은 2년의 시차를 두고 2025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은 셈이다. 2026년 '준공 후' 미분양이 해소되는 그림이 보인다면 분양 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23 전국 미분양 물량 추이: 2025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




자료: REP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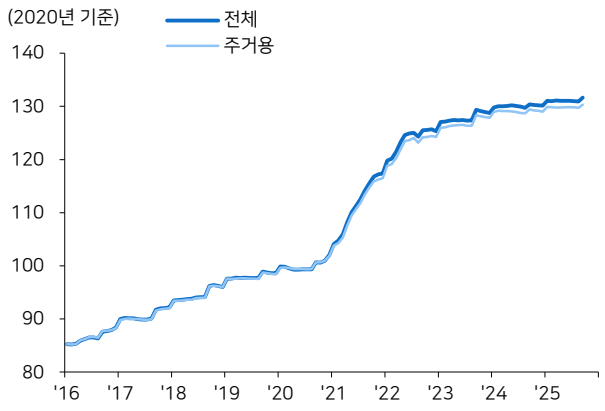
**그림24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추이: 2025년 하반기 들어서 정체**




자료: REP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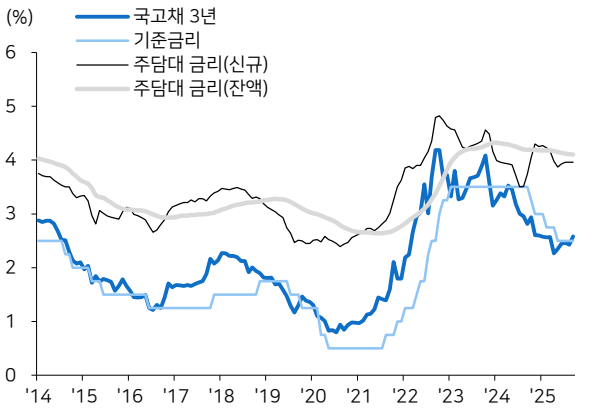
신규 분양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가 2023년 이후 상승세를 멈춘 상황에서, 낮아진 금융 비용과 토지 구매 비용 등이 2026년 이후 신규 분양 프로젝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담대 금리는 전반적인 금리 하락 대비 하락세가 덜하지만(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과거 대비 주택을 사기 좋은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그림25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 공사비는 상승세가 2024년 이후 멈춤**




자료: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주담대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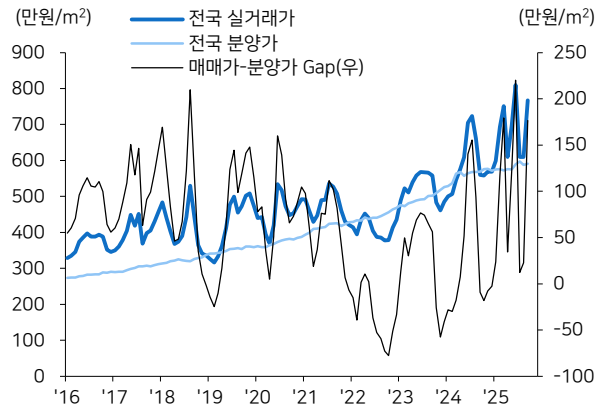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방에서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이 줄어든다면(준공 후 미분양 축소, 신규 공급 감소) 실거래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분양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회복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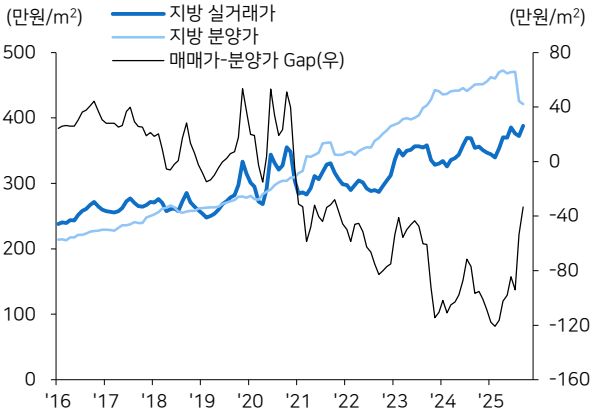
아직 지방에서 매매가-분양가 Gap은 음수의 영역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가 더 메리트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Gap 축소 및 역전현상이 관찰된다면 지방 건설사에 주목이 필요하다.

**그림27 서울: 실거래가 가격 상승이 분양가 상승을 뒷받침**




자료: REP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지방: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지지부진. Gap 지속 확대**




자료: REP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